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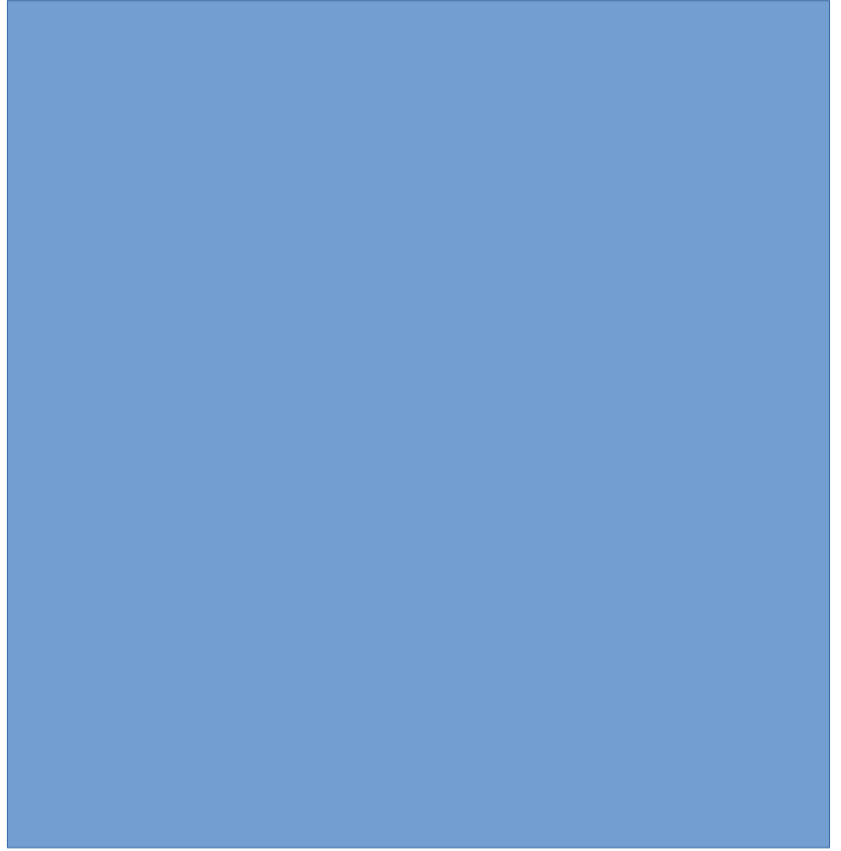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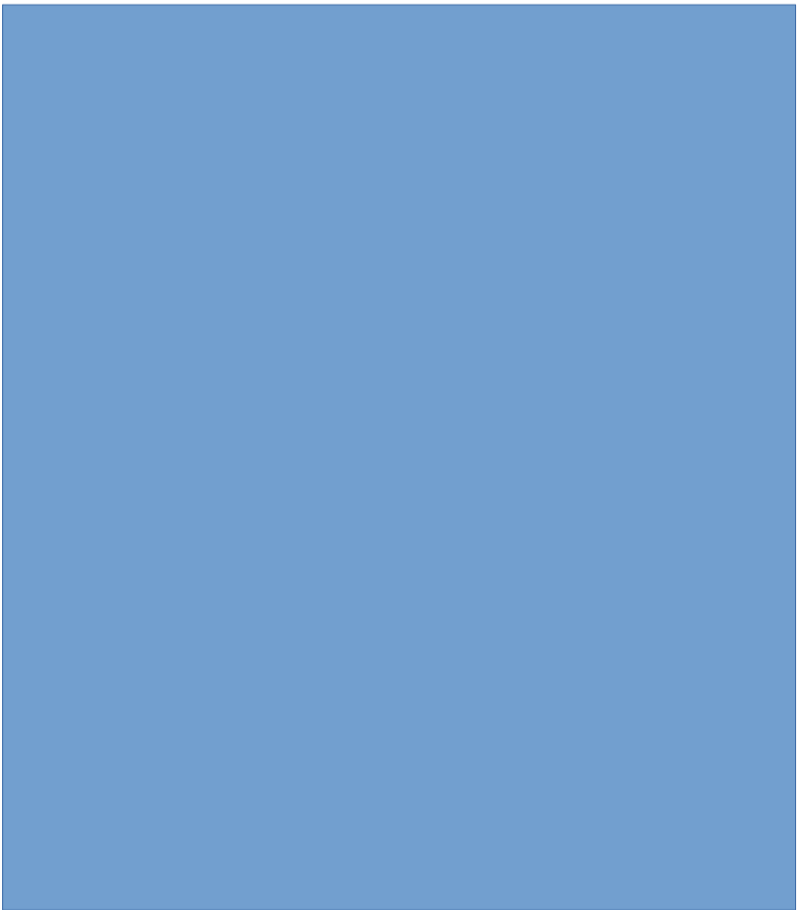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8 점과 2.2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 점씩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 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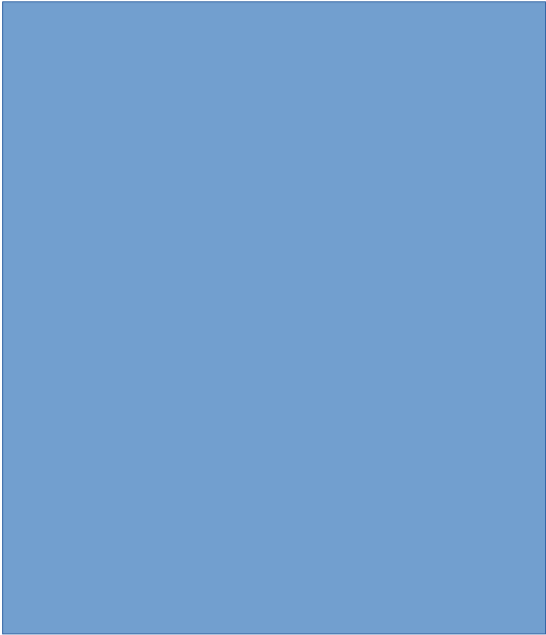
구·과학탐구영역



의 조건에 맞추어 완성한 것은? [2.2 점]

⑨~⑩ '가족 공동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영역



졸업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 젊은이다운 꿈과 패기를 가지고 부단히 ㉠ 노력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십시오. 이 세상의 꽃들은 제각각 그 피는 시기가 ㉣ 상이합니다. 또 꽃이 피기만 하면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졸업생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꽃을 피워 낸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그 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직 자신이 원하는 꽃을 피워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꽃이 같은 시기에 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원하는 꽃을 피워 내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 소중한 여러분의 꿈을 모두 이루길 바랍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보 사회의 대표적인 기기인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인공 위성은 서로 연결, 조합되어 어마어마한 정보 체제를 구성한다.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정보 사회를 특징화하는 기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우리를 개방하며, 컴퓨터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텔레비전은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컴퓨터는 단순 정신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폭넓은 해방과 개방은 위치 감각의 상실 또는 실재관(??◆), 세계관의 계속적인 ㉠ 동요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자체는 고통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 방향의 거점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제약된, 또는 한계 규정된 위치에 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회학, 심리학에서는 '역할'이라고 부른다. 일단, 위치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더 고차적인 새로운 위치 감각의 형성에 이어진다면 해방과 개방은 축복일 수도 있다.

정보 사회를 축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개방 사회를 사는 지혜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 해방된 정신적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다.

개방 사회라는 말은 사람들이 타고난 계급이나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회라는 또다른 차원의 의미가 부가된다. 모든 집단 관계는 어느 정도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보의 통제를 통해서 그 ㉢ 역할이 결정된다. 그것이 집단 사이의 신비이며, 신비는 외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개방 사회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공개, 전달함에 따라 지도자와 국민 사이, 어른과 아이들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비와 외경의 베일이 없어진다. 전자 미디어 문화를 지속하는 한, 이 변질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변질을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으나, 반대로 다 나쁘다고 몰아칠 수도 없다. 문제는 개방으로 변질해 가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들을 찾는 일이다.

둘째는, 단순 정신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를 좀더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는 발산적 사고를 이용한 예술적 창작과 감상, 지적인 창의와 모험, 도덕적인 재지향(???)과 ㉣ 통찰의 길을 가야 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찾아 나가야 하며,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을 새로운 상황과 정보에 적합하게 계속적으로 재구조(???)해 나가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보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수록 인문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자동 장치로 가득한 전자 시대는 사람들을 기계 시대의 고역(고?)에서 해방시켜 주는 대신, 사람들을 자아 실현과 사회 발전에 정신적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해방은 지적 모험(???)과 예술적 탐구의 정열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는 인간에게는 도리어 허무감을 낳고 박탈감과 반항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가져다 준 해방과 자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수천 년 전,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목 시절을 끝내고, 책상에 앉아 펜과 책으로 문명을 가꾸어 왔다. 이제, 정보 테크놀로지에 의해 인간은 다시 넓은 들판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개방되고, 더 많이 해방되었기에 더 넓은 공간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운명처럼 사람들에게 좀더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민족은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사상, 감정 및 사고 방식도 아울러 지닌다. 이들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언어 유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명과 지명불교유학근대화의 물결

둘째, 높임법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높임법은 상하 관계를 존중하던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여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가 하면, 높임법과 높임말이 발달하였다.

서적을 통한 문어(??)가 전달될 때에는 구체적인 사물 이외에도 추상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도 무제한에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구어보다도 훨씬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겨레는, 우리의 친족 호칭, 건축 구조물,

언어영역

수사, 색채어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상, 희망, 진보와 같은 추상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주로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자어를 ㉠ 빌려 쓰게 되었다. 외국어로부터 어휘를 빌려 쓸 때 명사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에 관한 명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새로운 종류의 활동이나 상태에 관한 어휘를 알게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현대식 교육이 보급되어 서구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이 보편화되자, 서구어계 외래어, 그 가운데에서도 영어계 어휘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이들 외래어가 널리 쓰이게 되는 것은 새말의 형성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언어는 실 새 없이 새말을 만든다. 지금까지 쓰여 온 어휘만 가지고는 [] 을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말을 만든다. 그런데 이 새말은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들어올 때, 이를 가리키는 외국어의 명칭까지도 동시에 받아들여 쓰이게 된 것이 많다. 또 우리 겨레 스스로 새롭게 만든 사물이나 관념을 표현할 경우에도, 우리들은 고유어보다는 한자어나 서구어계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는 고유어보다 한자어나 서구어계 어휘가 훨씬 조어력(???)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자어 및 서구어계 외래어, 그리고 일어계 외래어를 쓰는 심리에는 이러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월성을 느껴 보려는 일면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요즘 외래어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외국어 어휘를 일상 회화에서 ㉡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심리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옛날에는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섞어 쓰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도 했다.

㉢

과용(vi?)하는

남용(3/4?)하는

오용(??)하는

범용(??)하는

남용(3/4?)하는

징조 할배는 참 훌륭했었지. 더구나 고조 할배는 진사 급제꺼정 해서는 베실을랑 하시지 않고서……."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자랑인 양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고조 할배는 머한다고 간도란 데로 가셨당강요?"

"그건 니가 좀더 크야안다."

해 놓고서도 이내 덧붙였다.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뺏고서 미안새김 겸 입이라도 틀어막고 보겠다고 베실아치나 이름 있는 양반네들에게 '합방 은사금'이란 걸 내 주었는데, 그 고조 할배는 그 돈을 더럽다고 그 자리에서 되돌려 주었더라. 그러니 그놈들이 좋다겠잖나. 그 길로 밋비이다가 할 수 없이 그만 조선 땅을 떠나셨다고 안 하나!"

아직 철이 안 든 분이는 간도란 데가 어딘지, 또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몰랐었지만, 아무튼 고조 할아버지는 조금 무서운 어른이었나 보다 생각하였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만주 땅을 헤매었다지만 찾은 뒤에도 결국 모셔 오지는 못하고 돈만 작살을 내었다고 한다. 요컨대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 해서 허 진사집이 겪은 첫 번째 수난이었다.

"하지만, 그란다고 누구 하나가 감히 참견할 사람도 없었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할머니의 시아버지-그러니까 분이의 증조 할아버지 오봉 선생도 고조 할아버지 못지 않게 무서운 어른이라고 느껴졌다. 아닌게 아니라 분이의 아득한 어릴 적 기억 속에도 증조 할아버지의 ㉣ 파르스름한 눈빛이 유달리 얼어붙어 있었다.



"우짜다가 화를 내실 때는 꼭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디이라. 목소리나 비미이* 쿡나! '못난 것들!' 하고 호통을 치실 때는 그저 온 집이 찌렁찌렁 울리디이라."

할머니는 이런 표현을 하였다.

시아버님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야야, 춥다. 어서 방에 들어가거라. 와, 부엌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서....."

저녁 일이 늦을 때는 이렇게 나무람 겸 위로를 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때로는 가벼운 한숨을 쉬곤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며느리 가얏댁은 일을 덜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한 가문의 부녀자들은 비록 굶는 한이 있더라도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여기었지마는, 그녀는 타고난 천성이 그러질 못했다. 집안 형편을 따라서 진일 마른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해 내었다. 일을 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꺼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찍 배우지 못한 일이라도 이내 손에 익숙해졌다. 머슴이나 부엌 식구들이 도리어 송구스럽게 여길 정도로 부지런했다. 벌써 그녀는 한다면 양반의 집 며느리가 아니라 흔해 빠진 농사꾼의 마누라처럼 되어 갔다.

남편인 명호 양반은 그저 미안스러운 눈치만 보였다. 그는 소위 양반의 집 맞아들로서 층층 시하에 눌러 살아온 처지라 대소사를 막론하고 어른들의 눈치나 살필 일이지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실 그는 부인 가얏댁보다 나이도 두어 살 아래였을 뿐 아니라 이녁* 할아버지나 아버지 오봉 선생에 비하면, 위인이 **윗골의 가야 부인과 유사한 성격의 인물은?**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가 못 되었다.

시아버지 오봉 선생은 출타할 때도 마누라보다도 자부인 가야 부인을 꼭 불렀다.

"야야, 내 옷 좀 챙겨 오너라. 여분이 한 볼썽 더 있었음 좋겠다."

애당초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 오겠다는 말도. 누가 따르기는커녕 배웅도 멀리 못 나오게 했다.

아부이, 잘 다녀오이소."

대문 밖에서 그저 이렇라치면,

"오냐, 집 잘 지켜라."

하고는, 돌아도 안 보고 횡 떠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안 계시면 가야 부인이 실제 주인 구실을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명호 양반은 아직 글만 읽는 서생인데다 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워낙 눌러서만 살아오던 분이 돼서 매사에

자기의 의견이라고는 내세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의향을 물으면,

"내가 머야나, 니가 알아서 해라." 고작 이런 투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야 부인은 온갖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듯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데리고 온 몸종을 이녁 딸처럼 아꼈다. 삼월이도 빨리 제 갈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종이라 해서 그녀들을 맘대로 부리거나 하시*하지는 않았다. 원래 마음이 너그러운데다 신심의 탓도 있었으리라. 길쌈철이 되면 그녀들과 한자리에 어울려서 일을 거들었다. 무릎 위까지 살을 드러내 놓고 모시나 삼을 흠뻑아 가며 **바비쳐*** 이을 때는, 시어머니의 눈이 둥그래지기도 했지만, 가야 부인은 샌님들이 타고 다닐 마필이 없어진 처지에 상일이면 어떠며, 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눈치를 일부러 비치기도 했다.

"나무-아미타불!"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탄성이 자주 새어나왔다.

- * 동척 :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
- * 비미이 : 예사로
- * 이녁 : '하오'할 사람을 마주 대해 자기를 낮추는 말
- * 하시 : 내려다봄
- * 바비쳐 : 문질러

- 김정환, 「수라도」

언어영역

,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풍속화는 문자 그대로 풍속을 그린 그림이다. 세속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에서 속화(??)라고도 한다.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따져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나는 풍속화에 대해 엄밀한 학문적 논의를 펼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풍속화가 인간의 모습을 화폭 전면에 채우는 그림이라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 인간을 그림의 중심에 놓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접하는 그림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림의 전면을 차지하는 작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더욱 그렇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근 전쟁을 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핀잔을 듣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은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 시대에도 회화의 주류는 산수와 꽃과 새, 사군자와 같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치다고도 할 것이다. 산수화에도 인간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산수화 속의 인간은 산수에 부속된 것일 뿐이다. 산수화에서의 초점은 산수에 있지, 산수 속에 묻힌 인간에 있지 않다. 정선의 <만폭동도>에 등장하는 인간도 산수 속의 극도로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그림이라면, 초상화가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사실 그렇다. 초상화는 인간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그림이다. 나는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도 있다. 그것은 초상에 그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 보일 때인데, 특히 송시열의 초상화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초상화는 아무래도 딱딱하다. 초상화에서 보이는 것은 얼굴과 의복일 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반해 조선 후기 풍속화는 인간의 현세적, 일상적 모습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다. 소로 밭을 갈고 타작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짚신을 삼는 생산 현장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기방에 드나들고 도박을 벌이는 유흥의 현장까지 숨김없이 화폭에 담았다.

그림 속의 인물도 사뭇 달라졌다. 조선 사회가 양반 관료 사회인 만큼

양반들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주류는 이미 양반이 아니다. 농민과 어민, 그리고 별감, 포교, 나장, 기생, 뚜쟁이 할미까지 도시의 온갖 인간들이 등장한다. 풍속화를 통하여 우리는 양반이 아닌 인간들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다. 여성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도 풍속화의 시대에 와서이다. 조선 시대는 양반·남성의 사회였다. 양반·남성 중심주의는 양반이 아닌 이들과 여성을 은폐하였다. 이들이 예술의 중심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특히 그림에서는 인간이 등장하는 일이 드물었고, 여성이 등장하는 일은 더욱 없었다. 풍속화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이 회화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려진 것"제작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이를 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민중의 교화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그림들은 18, 19 세기의 풍속화와는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관념의 선전
모든 인간
인간의 외면
인간 중심

풍속화

있는 것은? [1.8 점]

이러한 일상성의 세계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세계다. 문제될 만한 것은 대체로 가려져 있지만 혹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각 제거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일상성에 대해 "지당합니다."라든지 "물론이죠."라고 함창한다. 이런 세계에서 현상과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회의(?)하면서 현상의 표피를 뚫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는 의식이다. 특히 일상의 관습이 완강하게 받쳐 주고 있는 그 '물론'의 바탕과 내용을 파헤쳐 보려는 의식이다.

따라서, 문제 의식은 허위 의식을 폭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 허위 의식이란 복잡한 현실을 짐짓 단순화시키고, 더럽고 잘못된 현실을 짐짓 아름답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짓된 현실 인식을 말한다. 수사(??)의 발발들로 꾸며져 있어서 사람을 홀리거나 속인다. 속이 더럽고 부끄러울수록 허위 의식은 깨끗하고 떳떳한 날망들을 동일한다. 자유, 발전, 행복, 정의, 평화 등을 앞세워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적 발전을 못추며, 행복을 깨뜨리고, 정의를 흐리며, 평화를 파괴한다. 이럴 때 문제 의식이 요청된다. 문제 의식을 갖춘 사람은 정직이라는 말로 단장된 허위 의식의 거짓된 속셈을 꿰뚫어 본다. 문제 의식에 투철한 사람은 자유를 앞세우는 억압의 행태를 알아차린다. 그는 정의를 큰 소리로 외치는 불의를 투지할 줄 안다. 그는 평화를 강주하는 폭력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조감(??) 의식이며 통찰(?)이다. 그러기에 문제 의식이 없는 지식인은

㉡ 와(과) 같다.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칭 지식인이 있다면 그는 한낱 지식 기사에 지나지 않고, 문제 의식 없이 학교에 다니는 젊은 지식인. 있다면 그들은 한낱 직장 예비군에 불과하다. 문제 의식을 갖추어야 할 때만 그들은 지식인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뜻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의식은 어떤 사건의 문제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요 의식이다. 그것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일상적 세계의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게 하며, 문제되어야 할 사건들이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 일상성의 세계 또는 상식의 세계는 대체로 '물론(?)'의 세계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는 세계가 바로 물론의 세계다. "일부 일처제가 옳습니까?"라고 물을 때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한다든지, "주권 재민의 사상이 옳은 사상입니까?"라고 물으면 "물론 그렇고 말고요."라고 대답할 때 일부 일처제와 주권 재민은 일상성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정체(?)에 대해서 묻고자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대번에 잘못된 것이거나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일상성의 횡포(?)다.

언어영역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다. 그러나 시백은 신부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와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자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소일한다. ㉠ 이후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되자, 시백은 크게 기뻐한다. 이 때 중국의 용골대 형제가 십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한다.

골대 부하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불꽃이 충천하니, ㉡ 박씨 부인이 계화에게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왼손에 붉은 부채를 들고, 오른손에 흰 부채를 들고, 오색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으로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도리어 오랑캐 진중으로 불길기 들이치며 오랑캐 병사들이 그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며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골대 크게 놀라 급히 퇴진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가로되,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포 소리만으로 조선을 도모하였으나, 이 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를 뵈오리오."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여러 장수들이 좋은 말로 권유하며 왈,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군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 왕비와 세자, 대군과 장안 물색(????)을 거두어 행군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이 때 박씨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적진을 대하여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 놈아.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왕은 우리를 모르고 너 같은

구상유취(????)를 보내어 조선을 침략하니 국운이 불행하여 패망은 당하였거니와 무슨 연고로 우리 나라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만일 왕비를 모셔 갈 뜻을 두면 너희들을 몰살할 것이니 목숨을 돌보아라."

하거늘, 오랑캐 장수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왈,

"너의 말이 가장 호락호락하도다. 우리 이미 조선 왕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기와 아니 데려가기는 우리 손바닥에 달렸으니 그런 구차한 말은 말라."

하며 엽신여기고 옥보이거늘 계화가 일러 왈,

"너희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하고, ㉣ 말을 마친 후에 무슨 진언(???)을 외더니,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 일어나며 우박이 담아 붓듯이 오며 순식간에 급한 비와 눈바람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장수와 군사들의 말발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지라, 오랑캐 장수가 그때서야 깨달아가로되,

"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부디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한 순간의 분함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곳에 와서 도리어 화를 당해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울대도 죄 없이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뵈리오. 우리 이러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오랑캐 장수 등이 갑옷을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여 가로되,

"소장(???)이 천하에 횡행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며 무릎을 한 번 꺾어 없더니 부인 장막 아래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모셔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름을 걷고 나오며 크게 꾸짖어 왈,

"너희들을 씨도 없이 몰살하자 하였더니, 내 인명을 살해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십분 용서하나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말며, 너희들이 부득이 세자, 대군을 모셔 간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를 따라 거역치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모셔 가라.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니 내 신장(???)과 갑병(???)을 모아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북경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잡아 분을 풀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아니리니 내 말을 거역치 말고 명심하라."

한대, 골대 다시 애걸 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크게 웃으며 왈,

"㉤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옷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울대 머리를 옷칠하여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만 분의 일이나 풀리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 하리라."

골대 이 말을 듣고 분한 마음이 충천하나 울대의 머리만 보고 크게 울 따름이요, 할 수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행군하되 의주로 행하여 임경업 장군을 보고 가라."

골대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 대군과 장안 물색을 데리고 의주로 갈 때 잡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박 부인은 무슨 복으로 환(?)을 면하고 고국에 편안히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 타국에 잡혀가는고. 이제 가면 언제 어느 때에 고국산천을 다시 볼꼬."

하며, 통곡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외쳐 가로되,

"인간 고락(과 Ⅱ)은 사람의 상사(??)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 년 사이에 세자, 대군과 모든 부인을 모셔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히 가거라."

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점]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던 어느 날 과객 차림으로 찾아온 신랑의 숙부 김명정이 신랑이 절름발이라고 귀뜸하자 맹 진사 댁은 발각 뒤집힌다.

언어영역

(맹 진사 초연히 들어온다.)

. 두구 보아라. 이 맹 진사의 수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을 게다. 귀신두 꼭하구 물러갈
묘책이지. 이봐! 참봉! 참봉!

(급히 등장)

서 마님허구 젓엄마를 좀 나오라게.

(사랑으로 퇴장. 그와 스치어 삼돌이 등장)

알 보내 주어야 할 텐데. 걱정 말어. 참한 색시 하나 골라 잡아줄께, 응? 헛헛…….

아주 맹랑한 게 영감 마님은 모르셔요. 헤헤……. 고 계집앤…….

— 오영진, 「맹 진사 맥 경사」

인간이 찾아낸 아름다운 수학적 양식 중 유명한 하나의 예가 황금 분할이다. 흔히 "수학은 어떤 학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수학을 아름답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황금 분할에 대해 알게 되면 이런 의문은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 중 황금 분할을 적용한 가장 오래된 예는 기원전 4700 년 경에 건설된 피라미드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인류가 황금 분할의 개념과 효용 가치를 안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집트인들이 발견한 황금 분할의 개념과 효용 가치는 그 뒤 그리스로

전해져, 파르테논 신전의 전면에 나타나는 직사각형의 변들처럼 그리스의 조각, 회화, 건축 등에 철저히 적용되었다. '황금 분할'이라는 명칭도 그리스의 수학자 에우독소스에 의해 붙여지게 되고, 이를 나타내는 파이(ϕ , 1.61803)도 이 비율을 조각에 이용하였던 피디아스라는 사람의 그리스어 머리 글자에서 따왔다.

이 황금 분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한 선분을 AB 라고 하자. 어떤 비율로 선분 AB 를 나누고자 한다. 즉, 얻어지는 길이가 ①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선분 AB 상의 점 P 를 찾고 싶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분 AB 의 길이를 단위 길이 1 로 가정하자. 여기서 선분 AB 의 길이에 대한 선분 PB 의 길이의 비가, 선분 PB 의 길이에 대한 선분 AP 의 길이의 비와 같도록 점 P 가 결정될 때, 황금 분할은 이루어진다. 즉, 어떤 주어진 선분에서 $(a+b) : b = b : a$ 의 등식이 이루어지게 나눌 수 있는 점을 황금 분할의 점(전체 길이의 61.8%에 해당하는 점)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황금 분할의 등식이며 일반적으로 황금 분할을 이루는 비율을 말할 때는 0.618 또는 1.618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황금 분할이라 함은 전체 속에서 두 개의 크기가 다른 부분 사이의 독특한 상호 관계이며 황금 분할이란 이 비율 관계의 절묘함을 뜻하는 용어이다.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파이의 비율을 응용하여 만든 물건들은 다른 비율을 응용해 만든 것에 비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왜 파이가 인간에게 안정감과 조화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자연적인 우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이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된다면 그 우연은 평범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파이에는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것의 근원은 수'라고 생각했던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파이 안에서 우주 질서의 비밀을 느꼈다. 그들은 파이를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성한 하나의 상징으로 인식했고, 파이로 말미암아 숫자의 신비스러움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기에 그들은 황금 분할의 비율이 내재된 오각형별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황금 분할의 특징처럼 자신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전체의 더 큰 형태에 융화되는 삶을 영위하였다.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어영역

성북동 산에 ㉠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넋찍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 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L)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네가 벌써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운전을 배울 때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네가 대전스러웠다.
면허증은 무엇이나 따 두는 것이
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아픈 애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네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강?호애 ?병이 겁퍼 ?뚝?님의 누엇더니, ◆관뵤동 ?팔?뻬 ㄱ ?니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땡ps극ㅎ·다. ㉠ ?연?츄?문
 드리ㄷ·라 T경?회 ㉡남?뿔 ㅂ·라보며, ?하?직고 물너나니 ?옥?절이
 알표 ㅅ ㅅ었다. ?평 ㅉ 구?역 ㅁ·르을 ㄱ·라 ?혹?슈로 도라드니, ?섬 : 강은
 어디메오, ?티?악이 여기로다. ㅅ고?신 ㅈ 거너 국에 ?뻬 ㄱ ?밭도 하도
 할샤. ㅊ급?당?유 ?풍?츠 ㅅ를 고타 아니 볼 게이고. ?셔?호 ㅅ ?츄?인을
 받져서 ㄷㅅ노ㄴ·ㄴ ㄷ·ㅅ. 어와 너여이고, 너 ㄱ·ㅅ·니 ㅅ 잇ㄴ·ㄴ가. ㄷ
 기운 ㅎ터 내야 ?인◆걸을 ㅁ ㄴㄴㄷ ㄹㄹ고쟈.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도
 하도 할샤. ?턴?디 삼기실 제 ?ㅅ·?현악 되연마ㄴ·ㄴ,
 [redacted] ?비?로?봉 ?상?상ㄹ두의 올라 보니 기
 뉘신고. ㅂ동?산 ?태?산이 어ㄴ·야 ㅅ뎡뎡고. ?노ㄴ국 조븐 줄도 우리ㄴ·ㄴ
 모ㄴ·거든, ㅅㅅ거나 ㅅㅅ은 ?턴?하 ㅅㅅㅅ | ㅎ·야 적뎡 말고, 어와, ㄷ
 ㅅㅅ워ㄴ ㅎㅅ 어이ㅎ·면 알 거이고. ㅅㄹㅎ디ㄴ 못ㅎ·거니 ㄴ·려가미
 ㅅㅅ역ㅎ·르가. ?원?통골 ㄱ·ㄴ·ㄴ 길로 ?ㅅ·?ㅈ·?봉을 ㅅ·쟈가니, 그
 알표 ㅅ 너러바회 ?화?뿔쇠 되여세라. ?전(ㄹ)년 ?노?뿔이 ㅅㅅㅅ ㅅ구ㅅㅅ ㅅ
 ㅅㅅ, ?뉘?야의 ㅎ녀 내여 ?창?ㅎ ㅅ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
 일?우ㄴ·ㄷ 디런ㄴ·ㄴ다. ?음?예예 이온 ㅅ을 다 ㅅ와 내여ㅅ·라.

- 정철, 「관동별곡」

찾은?



언어영역

